

제 132 호

연중 제 10 주일

1975. 6. 8.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②3498)

□강론□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김영구 신부

* 성심 철회의 목적 *

그리스도의 사랑을 개괄적으로 상기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축일이 성심철회이다. 성교회는 주께서 마리아 말가리다에게 계시하신 바에 따라, 이 철회로써 그리스도의 모든 철회의 막을 달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천의에 대한 관상도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으며, 남은 것은 다만 그것을 고취한 사랑뿐인 것이다.

신심이란 말은 라틴어의 데보베레(Devovere)로 부터 나온 것이다. 사랑하는 자에게 보다 더 깊게 귀의한다는 것, 거기에 자기의 일체를 바친다는 뜻이다. 천주께 대한 신심이란 우리들의 전 생명을 천주께 다 바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사랑의 가장 열렬한 증거이며 표현이다. "너희는 너희의 온 마음과 온 영신과 온 역량으로써 내 주 천주를 사랑하라." 예수의 성심에 대한 신심이란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당신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나타내시며, 또한 이 사랑의 표상으로써 육신의 심장을 보이신 예수 자신에 대한 신심이며 가장 깊은 의탁인 것이다. 성심에 대한 신심의 특유한, 그리고 직접 대상은 그리스도의 육신의 심장이다. 그 심장은 실제로 우리의 정배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말씀이 완전한 인성과 실제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표상에 불과하다. 즉 사랑의 표상인 것이다. 보통 우리 회화에서 심장(마음)이라 하면 곧 사랑을 연상케 한다.

성경에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바치라"고 한 것은 사랑을 나에게 바치란 뜻이다. 이 신심에 있어서 누구를 숭앙(崇仰)하는 뜻일까? 그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 그것이다. 이 신심의 직접적이며 특이한, 그리고 독특한 대상은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의 육신의 심장, 신(神)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으며 우리 인류의 사랑에 파도치며 고동치고 있었던 심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 심장을 예수의 인성으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된다. 또 강생에 의하여 그 인성이 결합하여 계시던 영원한 말씀의 펠소나(位格)와 분리하여서도 안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심장을 우리 인류에 대한 예수의 영원한 사랑의 표상으로서 존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온유하신 예수 성심이여, 우리 마음을 당신 마음과 같게 하소서).

<교동 정양소 신부>

이 주일의 미사

가톨릭 기도서 P 374

(1) 개회식

□**임당송** 주께서 나의 빛/내 구원이시거늘/내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께서 내 생명의 바위시거늘, 내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를 괴롭히던 나의 적/그 원수들이 비실비실 쓰러졌도다.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호세아 6:3-6)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사랑이다.

□**중계송** ◎옳은 길을 걷는 이에게는 하느님 구원을 보내주리라.
주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땅을 부르셨도다/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너를 제사 때문에 꾸짖음이 아니로다.

□**제2독서** (로마서 4:18-25 성서 P 345)
그의 믿음은 더욱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들에게 석방을 알리라고 주께서 나를 보내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9:9-13 성서 P 18)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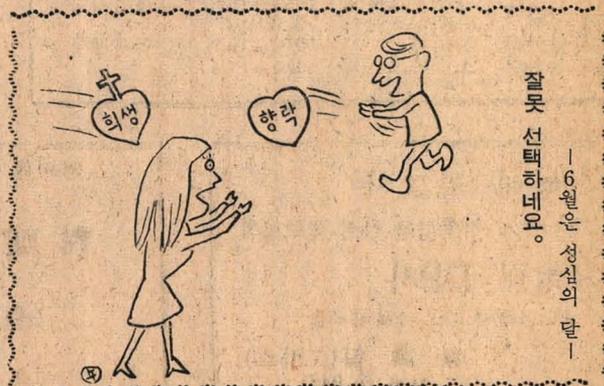
□신자들의 기도

1.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성 교회로 하여금/예수 성심의 뜨거운 사랑에 불타, 전쟁과 기아와 무관심속에서 해방되어/참으로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당신 나라를 건설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이멘
2.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 이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던/당신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간절히 당신께 부르짖는 이들의 기구를 들으시어/우리나라의 안녕과 번영과 참된 자유와 발전이 성취되도록/도와주소서. ◎
3. 언제나 죄인의 편에서서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주여! 죄중에 괴로워하는 이에게 당신의 자비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하시어 눈물을 거둘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소서.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시도다.

순정이 산책



잘못 선택하네여. — 6월은 성심의 달!

(2) 숲 정 이

□본 당 담 방□



성당 건립 회갑을 맞는 전주 전동 본당

전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게 1889년이였다. 불란서인 윤 사베리오(X. Baudounet) 신부가 완주군 소양면 대성동을 찾아 전주 진출을 기도한 것이다.

사실상 전동 본당이 발족한 것은 1891년이다. 이해에 윤 신부는 현재의 전동터를 구입하여 성당도 꾸미고 선교사역을 시작했으나, 1894년 동학란 때문에 일시 서울로 피신했었다.

1908년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운 윤신부는 갖가지 고난과 고신 극기 가운데 일을 시작하여 1914년에 현재의 전동성당을 준공 하였다. 이때에 심지어는 진안이나 장수 지방의 교우들까지도 자원해서 부역을 했다한다.

로마베스고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의 건축을 위하여 청나라의 기술자까지도 동원된 성당이 준공된 이듬해 윤신부님은 축성도 못보시고 57세의 일기로 이역만리 타국에서 선종하였다.

뒤를 이은 구 말셀로(M. Lacroux) 신부는 성당의 내부와 외부 미화 작업을 마치고 1915년 대구의 안 주교님을 모셔 성전을 축성했다. 금년을 전동성당 건립 회갑 기념의 해로 정한 전동 본당 교우들뿐만 아니라 온 교구의 모든 신자들에게 정말로 눈물겨운 감격의 장거가 아닐수 없다.

20대째 본당 신부들 모시는 간단한 연혁을 살펴기르 한다. (참고: 표 1)

1차 대전 반발로 일시 본국에 귀국 하였던 구신부는 다시 1920년에 전동에 부임하여 사제관을 건립하고 이주 갈다와 유요안 등의 유해를 이장하였다.

초대 교구장이었던 김양홍 신부는 전동 본당의 은인인 이춘화씨 3형제의 도움을 얻어 해성학원 개설(이춘화), 수녀원 신축(이춘의), 강당 신축(이춘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숲정이의 순교터와 교회 공동묘지도 구입하였다.

사실상 전주 교구의 은인인 이춘화(도마)씨는 진안 어은동의 부호 교우인 이 학수(바오로) 회장의 장남으로 이리의 구성당과 관촌에 성당을 건립하기도 했다.

그간 전주시대의 모든 본당들은 전동 본당이 발전울 가져와 새로 분리 설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구에서 운영하는 성심여중고(1891년 윤 신부의 여교당→1920년 구신부의 해성학원→1946년 김 현배 주교, 전동성당 강당에서 교육 시작→1963 숲정이에 교사 신축)가 똑같이 전동 본당이 그 모체가 되어, 전동 본당은 사실상 전주교구의 어머니 교회라 말할 수 있다.

그간 본당 신부님을 도와 교회 살림을 이끌어온 역대 본당 회장님들의 반수가 이미 작고하여 교인이 되었다.

〈역대 주임 신부〉

표 1

연대	성명	분명	재임기간	비고
1	윤사필	사베리오	1891-1915	불란서인
2	구말셀로	말셀로	1915-1918	불란서인
3	김승연	아우구스띠노	1918-1920	
4	구말셀로	말셀로	1920-1929	불란서인
5	김양홍	스떼파노	1929-1937	초대교구장
6	김영규	베드로	1937-1938	
7	이상화	발도로메오	1938-1940	
8	박문규	미카엘	1940-1941	
9	최민순	요왕	1941-1942	서울대신학교
10	김후생	바오로	1942-1944	
11	김명제	베드로	1944-1944	
12	이상화	발도로메오	1944-1947	
13	이약술	요셉	1947-1954	
14	장윤식	베네딕트	1954-1961	문시놀
15	오기순	알벨도	1961-1963	복자성당
16	김종택	요셉	1963-1968	교구 부주교
17	이상호	아우구스띠노	1968-1970	신태인성당
18	김재덕	아우구스띠노	1970-1972	교구장
19	법석규	마지아	1972-1974	교구사목국장
20	김환철	스떼파노	1974-	

〈역대 회장〉

1. 김 대귀(요한)
2. 임 학수(베드로)
3. 김 참일(아우구스띠노)
4. 김 지완(아우구스띠노)
5. 박 인숙(바오로)
6. 임 경선(베드로)
7. 박 군명(요한)
8. 박 양중(아우구스띠노)
9. 조 행용(방지거)
10. 유 회진(시몬-전직 교장)
11. 김 규승(베드로-성심 교장)
12. 김 후만(비오-사업)
13. 강 재희(베드로-신수당)
14. 한 수옥(분도-왕자표연탄)
15. 김 규승(베드로-성심 교장)
16. 송 영선(야고버-전직 국회의원)
17. 송 재진(요한-성심 교장)
18. 이 현재(요셉-사업)

현대 광고사

*아크릴, 각종간판, 아취, 셀크인쇄

현대 DP사

*칼라흑백사진, 카메라수리

송 흥 섭(토마스)

전화 ㉠ 9431

삼남극장과 전북신문사 베거리 중간

◎교형 여러분의 집◎

현대 사진관

김 낙 준(요한)

오거리 한전 옆

전화 ㉠ 6289

K.S사자포 페인트 대리점

반도카슈 대리점

표구제로 각종한지

실크 슬립백지 파이텍스

대동 지를 상사

전주시 풍남동 1가17번지

전화 ㉠ 5986

임 정 원(도민교)

□성심 성월□

□양 지 쪽□



성 심 (聖心)

-님에게 드리는 글-

업 기 봉 부제

하루의 삶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인간은 또 다른 하루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쉼 없이 움직여야 되나 보다. 어쩌면 인간의 삶은 찾음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의 모든 움직임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 갓난 아이의 움직임이 그렇고, 한 젊은이의 움직임이 그렇고, 한 노인의 움직임이 그렇다.

그러나 똑같은 움직임이지만 그 움직임의 목적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 움직임이 단순히 빵을 찾기위한 움직임이 될 수도 있고 그 움직임이 정신의 빵을 찾는 움직임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사실 인간의 살아가는 생태가 각양각색이듯이 찾음의 철학도 각양각색일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공통된 사실은 인간은 누구인가를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나는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 나는 아직 삶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나는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 나는 나의 '입'이신 그리스도를 뵈은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적도 없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영원한 나의 '입'으로 모시고 싶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가난한 내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아버지와 인간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이었으며 아버지와 인간을 향해 찾는 마음이었으며 아버지와 인간을 향해 봉헌하는 마음이었다. 이렇듯이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인간에게 한번도 자신을 패쇄하신 적이 없다. 일생을 통한 그분의 양식은 아버지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에 열려있는 마음이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일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찾는 마음이었다. 위로는 성부의 뜻만을 찾아 행하셨고 아래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에게 사랑을 심고 그들을 찾아 아버지에게로 이끌어 주시던 분이였다.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봉헌하는 마음이었다. 삶의 의미는 아버지에게로 시선을 돌릴 때만 가능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특별히 님의 마지막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소서. 그러나 이것이 제가 마셔야 할 잔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참으로 당신의 전 실존을 바치신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삶은 분명히 하루도 무엇인가를 찾지 않으면 안되는가 보다. 찾는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 그의 생(生)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리라. 나는 이제 젊음의 열기에서 돌아와 유월의 성심앞에 무릎을 꿇고 싶다.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력과 시간을 하느님과 흥정하는데 소비하였던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보다는 하느님이 나의 뜻을 따라주기를 바랬고, 하느님 안에 내가 변화 되기 보다는 내안에 하느님이 변화되어 주기를 바랬다.

주님 내 안에 당신의 삶을 심어 주소서. 나의 삶이 아버지와 인간을 향해 항상 열려있고 아버지와 인간을 향해 뜻을 찾는 마음이 되게 하고 아버지와 인간을 향해 바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광주 내전 신학대학)

요심이 (98) 김병오



개점 1주년 할인판매

삼성 T.V 대리점
삼성 전주 쉐타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절
박 영 옥(누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 5893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 5013
김 원 준(야고버)

※신자들의 건강 센터※

※신자들의 집※

성심당 한약방

대지사진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 654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계약 전문-

김 울태(베드로)
☎육교옆 중앙시장통
(전화 ☎4577)

※집단장 청부, 문의 환영※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료, 방수액, 후판등>

전화 ☎0876 김 데레사
소방서 북편, 결핵협회 옆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제 1차 여성 울뜨레아 (6월8일) 가톨릭센터에서 오전 10시
2. 중·고등학생 치명탑 원고 모집 : 학생 회원들의 많은 원고를 바랍니다.
3. 사제 연수회 : 75년 6월 17일(화)~20일(금), 전주 가톨릭 센터에서
4. 전주교구 주일학교 지구 회장단 회합 : 6월 15일(일) 가톨릭 센터에서

(중양) 전화 ㉠2651 주임 신부 이대권
 ㉠3874 사도 회장 김영진

1. 여성 울뜨레아 : 6월 8일 10시, 가톨릭센터.
2. 꾸리아 월례회 : 오늘 오후 2시
3. 부녀부 회의 : 공식 미사후
4. 본당 신부님 영명 축 : 6월 29일 영명 축하 파티 참가 희망자는 6월 22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람 (회비 : 1,000원)
5. 성모회 월례회 : 다음주
6. 애령회 소식 : 진북동 1가 김 누시아 3,000원 회사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1. 신용조합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애령회 간부 월례회 : 다음주
3. 견진 성사 등록합니다.
4.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돈울동 총 신입 : 262,320원 현금 : 49,250원
 대야 총 신입 : 31,370원 현금 : 8,000 중앙 : 6,000원
 전동 : 39,500원, 복자 : 7,900원, 합엘리사벳 : 5,000원
 기타 : 10,000원 주계 : 117,750원
 누계 : 3,342,467원

㉠신축 성미 : 1말 4되, 누계 260.4되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신자 재 교육, 예비자 교리(토) : 저녁 8. 30
2. 가정의 평화와 성화 및 죽은 연령을 위해서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미사를 바칩시다.
3. 신용조합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4. 사도회 임원회 : 다음주
5. 애령회 임원회 : 다음주(토) 저녁 미사후
 ㉠지난주 성미 15되 성금 400원
 누계 26되 2흡, 4,050원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선우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학생회 임시총회 : 공식 미사후
3. 신용조합 월례회 : 다음주 공식 미사후
 복자 신용 협동 조합 회계이사 : 김 주생씨
 (5월 20일부터 근무)
 ㉠성미 : 25. 누계 : 361.5되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상관 사도회 월례회 : 오늘 미사후
2. 축 영세, 유아 세례 52명 탄생
 지난주 영세한 우리 형제에게 축하 감사 기도를 바칩시다.
3. 중·고 교리, 예비자 교리 없음 <상관 미사 관계>
4. 사무장 김 재열 씨 모친 6월 1일 별세.
5. 담장, 대문 개수에 적극 참여 바람.
6. 중앙 사회부장 장 남수씨 5,000원 회사, 감사합니다
 ㉠애령 회비 : 4,78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사도 회장 이현재

1. 자모회 월례회 : 10시 미사후
2. 석 가정회 : 저녁 8시 미사후
3. 성당 건립 기념 공연 어머니 합창 연습.
4. 중·고 쉼 대항 성경 퀴즈 대회 : 사제관 공식미사후, 순정이 쉼 주최.
5. 신용조합 월례회 : 14일(토) 밤 8시 40분 <상품권 있음>

금주의 순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김경조(부스) 중앙극장 앞 금성 양복점 ㉠4340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부신태인정 창제안인입	성모회 월례회	18,445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동	본당 신부님 영명 축일	46,290원
		성모회 월례회	5,860원			견진 성사	40,715원
		대진 신용 협동조합 창립	14,100원			사도회 월례회	3,435원
제 2 지구	대 문울명중합	6월은 성심 성월	3,640원	제 4 지구	중 앙동 노 송동 덕 진동 서 학동 전 동	꾸리아 월례회	55,673원
		신용조합 창립	35,270원			신용 조합 월례회	10,495원
		신창 공소 강당 강복식	29,005원			신자 재 교육 및 예비자 교리	12,895원
		꾸리아 회	13,685원			성우회	17,685원
		청년회 월례회	11,070원			상관 사도회 월례회	15,120원
제 3 지구	고 금여	교리 교사 가정 방문 결과 검토회	2,800원	제 5 지구	남 무장진순	사도회 월례회	
		사도회, 신우회, 성우회 연석회	10,985원			신용조합 수금원 구함	4,820원
		아동 교리시간 변경	3,325원			평일 미사 시간 변경	